

송하진 도지사, 진안군의료원 시설 점검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위한 준비상황·안전 점검·관계자 격려... "의료진 안전 최우선·최상 의료서비스 제공" 당부

송하진 도지사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진안군의료원을 찾아 시설 안전 확보와 도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13일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도내·외 확진자 수용을 위한 의료 준비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의료원의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에 대구지

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송하진 지사와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조백환 진안군 의료원장 등이 함께했다.

진안군의료원은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3곳 중 하나로,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해 입원환자를 모두 전원시킨데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3층 병실의 공조시스템을 보완하고 격벽을 설치해 11실 27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환자와 도민의 안전은 물론 의료진의 안전까지 보장하기 위해 4층에 의료진 공간을 별도 확보했다.

송하진 지사는 진안군의료원의 감염 관리 준비상황과 의료진 안전확보 시설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며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면 전력을 다해 치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날 대구지역 환자를 수용해 진료하고 있는 군산의료원과 남

원의료원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를 걸어 의료진 등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대구지역 환자들도 완쾌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북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내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군산·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 3곳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23병상(군산 102, 남원 94, 진안 27)을 갖춘 상태다. /김진성 기자

식음료 제조 전문기업 삼각에프엠씨,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체결

300억원 투자·향후 1200여명 근로자 고용 계획

전북도는 (유)삼각에프엠씨(회장 김봉길)가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3만44㎡ 부지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2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삼각에프엠씨는 알로에, 과즙, 탄산, 커피 등의 음료를 생산하는 식음료 제조 전문기업으로 해외 40여개 국에 수출하여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작년 12월 27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20년 첫 분양계약을 대규모 투자로 체결함으로써 금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와 분양 확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삼각에프엠씨에서는 올해 안에 캔, PET, 파우치 등의 음료 생산 설비를 갖춘 신규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으로 향후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강해원 농식품산업과장은 "코로나19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를 결정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음료 산업은 식품 산업의 커다란 축인 만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세계적인 음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시군체육회와의 협업체계 강화

전북체육회는 13일, 14개 시군체육회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체육회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5면>

전북도, 콜센터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전북은행·SK텔레콤 등 방문...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예방대책 논의

전북도(일자리경제본부)는 지난 13일 전북은행, SK텔레콤 등 콜센터 설치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감염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10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고 대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는 IG휴넷(IG U+), SK텔레콤 229명, KT 자회사 9개소 323명, 전북

은행 50명 등 24개소 1,636명의 콜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전주시 14개소, 익산시 6개소, 군산 2개소, 정읍 2개소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콜센터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소독약품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 방문객 이력관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콜센터 직원의 좌석 간격을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로 근무하도록 하며,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

상을 확인하고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스크는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사항을 숙지해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공정무역 활성화 위한 사업 추진

기반구축 지원사업 대상지 전주·군산·익산 선정

전북도는 지난 13일 시군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 대상지로 3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을 선정했다.

시군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도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군과 협력하여 시군 공정무역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주민 공정무역 인식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시군은 공정무역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밀착형 공정무역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시·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내 학교,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간 공정무역 활성화 조례 제정(2017.11월)을 시작으로 2019년 도민 인식 개선사업과 전북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①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②대학생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이동 버스 ③마을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티파티 등을 진행하여 도내 20여 곳을 찾아가 도민 약 3,000명을 만났다.

도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민 인식 개선사업'과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 중이며 지역 일재료를 활용한 공정무역 제품 개발,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무역은 우리의 지역공동체와 소외된 저개발국가와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송금현 사회경제과장은 "이제 첫발을 댄 전북 공정무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성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구, 코로나19 극복 한뜻

송하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감사전화 받아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10일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구·경북지역 환자의 치료지원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통화는 대구·경북지역 환자와 확진자들이 지난 10일부터 남원, 군산 등 도내 의료원과 김계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에 대해 권 시장이 송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대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환자들을 따뜻하게 받쳐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 출신인) 정세균 총리가 활약 해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으며, 송 지사께서도 대구 시민들이 전북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에 송 지사는 "대구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에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 함께 온 힘

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송 지사는 12일에는 과거 행정자치부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대구시민들에게 전북도민의 응원을 전해주길 당부했다.

송 지사는 채홍호 부시장에게 "동료였던 채부시장이 코로나19 종식의 중심에서 헌신하고 있는 데에 감동을 느낀다"며 "대구 공직자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와 싸워준 덕분에 세계적인 방역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말부터 대구, 경북지역 중증환자를 도내 음압병상에서 치료하고 있으며 3월 10일부터 대구에서 온 경증환자와 무증상환자 260여 명이 회복할 때까지 도내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